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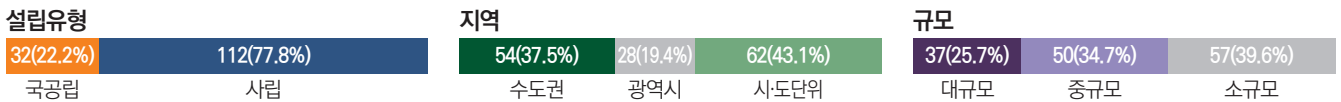
AX 시대의 고등교육

2026 KCUE Survey of University Presidents(Ⅱ)
Higher Education in the Era of AI Transformation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정책 건의 등에 활용
- **조사기간** : 2026년 6월 2일(화) ~ 7월 10일(금)
- **조사방법** :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율** : 회원대학 중 192개교* ➔ 144개교 응답(75.0%) * 문항특성상 특별대 5개교 제외(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응답 대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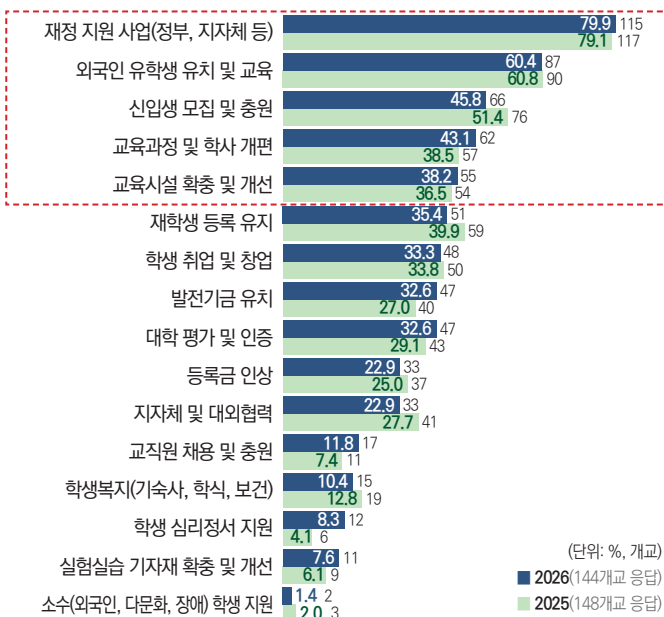


- **주요 조사 내용** : AX 전환기, 대학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협력·대응하며 재원을 마련하는지 살펴봄



Ⅱ.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

- (전체)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9.9%(115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60.4%(87개교), '신입생 모집 및 충원' 45.8%(66개교),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3.1%(62개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38.2%(55개교) 순으로 나타남.
- '재정 지원 사업'은 2023년 첫 조사 이후 1순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은 2025년 2차 조사 이후 2순위를 유지함.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43.1%)은 전년 대비 4.6%p 상승하여 5순위에서 4순위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38.2%)은 1.7%p 상승하여 6순위에서 5순위로 올라옴.
- 전년 대비 변동폭이 가장 큰 항목은 '발전기금 유치'(5.6%p ↑, 27.0%→32.6%)와 '신입생 모집 및 충원'(5.6%p ↓, 51.4%→45.8%)으로, 이 중 '발전기금 유치'는 순위도 10순위에서 8순위로 상승함.



[그림 1]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2025년(Ⅱ) 대비)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관심 영역은,

-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사립·비수도권·중소규모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대학에서는 2순위로 나타남. '재학생 등록 유지'도 사립·비수도권·소규모 대학에서 상위 5순위에 포함된 반면, 국공립·수도권·대규모 대학에서는 두 항목 모두 5순위권 밖으로 나타남.
- '발전기금 유치'는 국공립·수도권 대학에서 3순위, 대규모 대학에서 4순위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은 국공립 2순위·대규모 3순위,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은 수도권 2순위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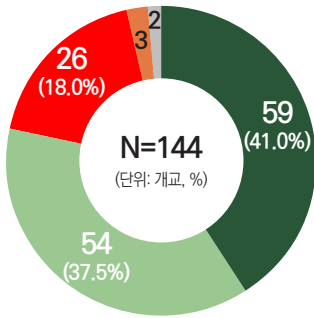
〈표 1〉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순위(설립유형·지역·규모 상위 5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	1	1	1	1	1	1	1	1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2	3	2	3	2	2	2	2	3
신입생 모집 및 충원	3		3		3	3		3	2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	2	5		4	4	3	4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5	5		2					3
재학생 등록 유지			4		4	5			5
발전기금 유치		3		3			4	5	
대학 평가 및 인증				3				5	
학생 취업 및 창업							4	5	

III. AX 전환을 위한 투자 계획 및 확대 필요성

- 향후 3년 내 AX 전환 투자 계획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대학이 59개교(41.0%)인 반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아직 계획 수립·추진에 이르지 못한 대학이 80개교(55.5%)로 더 많았음.
 - 계획에 이르지 못한 배경으로는 '재원 부족'(54개교, 37.5%)이 '검토 중'(26개교, 18.0%)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투자 계획이 없거나 별도 투자 없이 대응하겠다는 응답은 5개교(3.5%)에 그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2] 향후 3년 내 AX 투자 계획

- 설립유형 차이는 크지 않으며,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구체적 계획 추진 중' 응답은 대규모 64.9%, 중규모 46.0%, 소규모 21.1%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낮음. 반대로 '재원 부족으로 계획 곤란'은 소규모 대학이 47.4%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광역시 대학의 '재원 부족'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 지역·규모별 향후 3년 내 AX 투자 계획

(단위: 개교, %)

구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응답교	144	32	112	54	28	62	37	50	57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	59(41.0)	12(37.5)	47(42.0)	25(46.3)	9(32.1)	25(40.3)	24(64.9)	23(46.0)	12(21.1)
필요성 인식, 재원부족으로 투자 계획 수립 어려움	54(37.5)	12(37.5)	42(37.5)	18(33.3)	14(50.0)	22(35.5)	11(29.7)	16(32.0)	27(47.4)
필요성 인식, 검토 중이나 계획 미수립	26(18.0)	6(18.8)	20(17.9)	9(16.6)	5(17.9)	12(19.4)	2(5.4)	11(22.0)	13(22.8)
별도 투자 없이 현 수준에서 점진적 대응	3(2.1)	2(6.2)	1(0.9)	1(1.9)	0	2(3.2)	0	0	3(5.2)
AX 전환 자체에 대한 계획 없음	2(1.4)	0	2(1.8)	1(1.9)	0	1(1.6)	0	0	2(3.5)

- AX 환경 구축을 위한 6개 분야별 투자 확대 필요성은, 모든 분야에서 확대가 필요(소폭·상당폭·대폭)하다는 응답이 93.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평균값 기준(5점 척도)으로 'AI 인프라·플랫폼 구축'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AI 기반 교육과정·콘텐츠 개발'과 '교수자 AI 역량 강화'가 각 4.21로 뒤를 이음.

- 대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설립유형과 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남. 국공립 대학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립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AI 인프라·플랫폼 구축'(국공립 4.63, 사립 4.19)과 '상용 AI 솔루션·앱 도입비'(국공립 4.38, 사립 3.85)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광역시 대학이 타 유형의 대학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표 3〉 AX 환경 구축을 위한 6개 분야별 투자 확대 필요성(N=142)

구분	100% 누적 그래프(N=142, 단위: %)				평균(5점 척도: 해당 없음=1점 ... 대폭 확대 필요=5점)					
					전체	설립유형		지역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AI 인프라·플랫폼 구축	45.1	40.1	13.4		4.29	4.63	4.19	4.21	4.54	4.25
AI 기반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34.5	52.8	12.0		4.21	4.38	4.16	4.09	4.43	4.21
교수자 AI 역량 강화 및 교수법 혁신 지원	37.3	46.5	16.2		4.21	4.41	4.15	4.13	4.39	4.20
상용 AI 솔루션·앱 도입비	28.2	45.8	21.8		3.97	4.38	3.85	3.87	4.11	4.00
AI 관련 전담 조직·인력 확충	25.4	43.7	25.4		3.89	4.22	3.79	3.70	4.18	3.92
AI 인프라 운영비	20.4	40.8	32.4		3.75	4.09	3.65	3.62	4.00	3.74

■ 대폭 확대 ■ 상당폭 확대 ■ 소폭 확대 ■ 현 수준 유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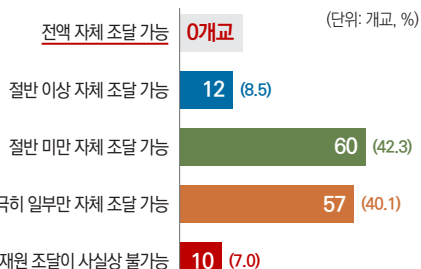
*주 1) N=142: 전체 144개교 중 Q1에서 'AX 전환 계획 없음'을 응답한 2개교를 제외한 값임.

2) 그래프의 '해당 없음·현 수준 유지'(전 분야 6.3% 이하)는 수치 라벨을 생략하여, 표기된 세 값의 합은 100이 되지 않음.

- 투자 필요 분야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 비율은, '절반 미만' 60개교(42.3%), '극히 일부' 57개교(40.1%) 순으로 나타남. 전액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한 곳도 없었으며,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한 대학이 127개교(89.4%)에 달함. 정부 지원 없이 추진이 곤란한 대학은 국공립 대학(65.6%), 소규모 대학(63.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4〉 AX 투자 필요 분야 자체 자원 충당 가능 비율

(단위: 개교, %)



[그림 3] 자체 자원 충당 가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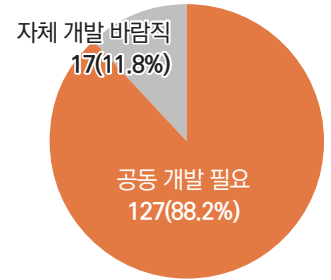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설립유형		규모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응답교	142	32	110	37	50	55
전액 자체 조달 가능: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추진 가능	0	0	0	0	0	0
절반 이상 자체 조달 가능: 정부 지원이 일부 필요	12(8.5)	0	12(10.9)	3(8.1)	7(14.0)	2(3.7)
절반 미만 자체 조달 가능: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필요	60(42.3)	10(31.3)	50(45.5)	21(56.8)	23(46.0)	16(29.0)
극히 일부만 자체 조달 가능: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추진 곤란	57(40.1)	18(56.3)	39(35.5)	11(29.7)	18(36.0)	28(50.9)
자체 자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전액 또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 필요	10(7.0)	3(9.3)	7(6.3)	1(2.7)	2(4.0)	7(12.7)
아직 비용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판단하기 어려움	3(2.1)	1(3.1)	2(1.8)	1(2.7)	0	2(3.7)

주) N=142: 전체 144개교 중 Q1에서 'AX 전환 계획 없음'을 응답한 2개교를 제외한 값임.

...

IV. AX 시대 대학 간 협력과 데이터 기반 혁신

- AX 시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 간 공동 개발·공유가 효과적이지에 대해, '공동 개발·공유가 필요하다'는 대학이 127개교(88.2%)로 나타나 '대학별 자체 개발·운영이 바람직하다'는 17개교(11.8%)를 크게 상회함.
-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27개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분야를 살펴본 결과, 가중치 반영 합계 기준 '교육 특화 AI 시스템'이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AI 기반 학습관리·학습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 체계'(176점), 'AI 연산·운영을 위한 공동 컴퓨팅 인프라'(120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대학 간 공동 개발 필요 여부

〈표 5〉 대학 간 공동 개발·공유가 효과적인 AX 분야(우선순위 3순위)

- 대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상위 3순위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중규모 대학**에서만 'AI 기반 학습관리·학습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 체계'가 1순위로 나타남.
- AX 시대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데이터 기반 혁신 영역은, 가중치 반영 합계 기준 '학습이력·성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선'이 2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학·취업·진로 데이터 연계 분석'(138점), '데이터 통합 관리·거버넌스 체계 구축'(117점) 순으로 나타남.
- 대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습이력·성과 데이터 활용'은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나타남.
 -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국공립·중규모 대학**에서 2순위로 나타남.
 - '대학 경영·재정·인력 운영 의사결정 지원'은 **대규모 대학**에서 2순위, **국공립·소규모 대학**에서 3순위로 나타남.

구분	가중치 반영 합계 그래프	우선순위			
		전체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교육 특화 AI 시스템(학습 지원 수업 운영에 특화된 AI 핵심 엔진)	230	1	1	2	1
AI 기반 학습관리·학습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 체계	176	2	3	1	2
AI 연산·운영을 위한 공동 컴퓨팅 인프라(전력 냉각 비용 공동 부담 포함)	120	3	2	3	3
AI 활용 교수학습 콘텐츠 및 강의 자료	86				
AI 환경 학생 평가 도구 및 가이드라인	40				
교수자 AI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39				
학생지원(상담·생활 지원 등) AI 서비스 공동 기준 및 연계모델	35				
외국인 유학생 AI 지원 시스템	16				

주) 누적이중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해 합산한 값임

〈표 6〉 AX 시대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데이터 기반 혁신 영역(우선순위 3순위)

구분	가중치 반영 합계 그래프	전체	설립유형		규모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학습이력·성과 데이터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선	289	1	1	1	1	1	1
입학·취업·진로 데이터 연계 분석	138	2		2	3	3	2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표준화·보안·개인정보 보호 포함	117	3	2	3		2	
대학 경영·재정·인력 운영 의사결정 지원	110		3		2		3
대학 교육 데이터(특성화 분야 등)의 AI 학습 자산화 및 활용	69						
연구성과 및 산학협력 데이터 관리·활용	67						
학생 상담·생활지원 데이터 활용: 심리정서 학습부진 등 맞춤형 학생지원 고도화	32						
대학 간 공동 데이터 플랫폼 또는 공공 데이터 연계	29						

주) 누적이중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해 합산한 값임

...

V. AX 전환에 대한 현장 대응과 인재양성

- 'AX 시대, 대학 현장의 변화 체감 정도와 대응 정도'는 모든 항목에서 변화 체감이 대응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변화 체감은 대다수 항목에서 '높음'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대응 수준은 '미흡' 또는 '보통'에 머무는 대학이 많았음.
- 특히 체감과 대응의 간극은 'AI 인프라 구축·운영 재정'(체감 2.76 vs 대응 1.62)과 'AI·첨단 분야 교원 확보 및 산업 현장 전문인력 활용'(2.66 vs 1.63)에서 크게 나타남. 이 두 항목은 '대응 미흡'으로 응답한 대학이 각각 69개교, 66개교로 가장 많아, 재정과 인력 기반에서 대응이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체감: 낮음 1점 ~ 높음 3점 / 대응: 미흡 1점 ~ 충분 3점, 항목은 간극이 큰 순으로 배열)



주 1) 막대는 100% 누적 그래프 분포이며, 막대 안 숫자는 응답 개교 수(체감·대응 각각 합 144). 2) 좌 우 숫자는 평균, 간극=체감-대응 평균

[그림 5] AX 시대 대학 현장의 변화 체감 vs 대응(N=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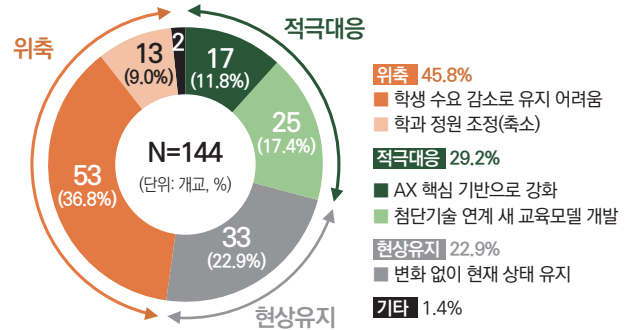
- 대응 수준 '미흡'으로 응답한 대학을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대학**과 **광역시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I 인프라 구축·운영 재정'에서 소규모 57.9%(57개교 중 33개교), 광역시 60.7%(28개교 중 17개교), 'AI·첨단 분야 교원 확보'에서 소규모 54.4%(57개교 중 31개교), 광역시 60.7%(28개교 중 17개교)가 대응이 미흡하다고 응답함. (※ 표 생략)

- AX 시대 대학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인재양성 방향은 가중치 반영 합계 기준 'AI를 전공에 접목하는 융합 인재'가 2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2순위인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 인재'(76점)를 크게 상회 함. 이러한 경향은 설립유형·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기초·순수학문 학과의 현황은 '학생 수요 감소로 유지 어려움'이 53개교(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변화 없이 현재 상태 유지'(22.9%, 33개교), '첨단기술과 연계한 새로운 교육 모델 개발 중'(17.4%, 25개교), 'AX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여 오히려 강화'(11.8%, 17개교) 순으로 나타남.
- 융합 인재를 지향(1위)하는 한편, 기초·순수학문은 인재 양성 우선 순위가 낮고(5위) 학생 수요 감소로 학과 유지도 어려움.

구분	가중치 반영 합계 그래프
AI를 전공에 접목하는 융합 인재: 전 분야에서 AI로 새로운 가치 창출	233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 인재: 비판적 사고·윤리·공감·창의성	76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전문 인재: 기술 경쟁력의 핵심 담당자	52
직무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는 평생학습 역량 인재	31
기초학문 심화 인재: 미래 기술혁명을 위한 학문적 기반	21
지역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 AI 시대에도 지역과 사람을 연결	16

주) 누적가중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해 합산한 값임

[그림 6] AX 시대, 인재양성 방향(우선순위 2순위)



[그림 7] AX시대, 기초·순수학문 학과의 현황

VI. AX 전환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 AX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원 확충 방안은, 가중치 반영 합계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정부 전입금 확대'가 2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재배분'(177점), '고등교육세 또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 재원 구조 마련'(171점) 순으로 나타남. 대학의 설립유형·지역·규모에 따른 순위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구분	가중치 반영 합계 그래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정부 전입금 확대	2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재배분	177
고등교육세 또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 재원 구조 마련	171
등록금 자율화 확대 및 AX 투자 목적의 등록금 수입 활용 자율성 확대	65
RISE 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 기반 AX 투자 확대	58
정부-대학 공동 투자 매칭 펀드 조성(대학 규모·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비율 적용)	43
민간 재원 확충·산학협력 기업의 인재양성 투자 참여 기반(세제 혜택 등) 마련	25
복권기금 등 기존 미활용 공공 재원의 고등교육 배분	11
기타	3

주) 누적가중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해 합산한 값임

[그림 8] AX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원 확충 방안(우선순위 3순위)

Remark

필요성 인식에서 실질적 대응으로: AX 전환을 뒷받침할 구조적 재원 확충 및 대학 간 협력 기반 마련 시급

-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재정 지원 사업(1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2위)'이 상위를 유지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4위)'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5위)'이 전년 대비 상승함. 또한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발전기금 유치'가 크게 상승(5.6%p ↑, 10→8위)하여 재원 확보 수단의 다변화 흐름이 나타남.
- [AX 투자와 재원]에서 대학은 투자 필요성에는 폭넓게 공감(확대 필요 93.7% 이상)하나, '구체적 계획을 추진 중'인 대학은 41.0%에 그쳐 인식과 실행 사이에 간극이 나타남. 전액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학은 0개교였고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한 대학이 89.4%에 달해 대학이 자체 재원만으로 AX 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보여줌.
- [대학 간 협력과 데이터 혁신]에서 각 대학의 단독 개발보다 공동 개발·공유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이 127개교(88.2%)였으며, '교육 특화 AI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 등 단독 구축이 어려운 기반 영역에서 협력 수요가 높게 나타남. 데이터 활용에서는 '학습이력·성과 데이터'가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확인되었고, 국공립·대규모 대학에서는 경영·거버넌스 데이터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설립유형과 규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초점이 다른 것을 확인함.
- [현장 대응과 인재양성]에서 대학은 AX로 인한 변화를 전반적으로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대응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AI 인프라 구축·운영 재정'과 'AI·첨단 분야 교원 확보'에서 그 간극이 크게 나타남. 인재양성 방향으로는 'AI를 전공에 접목하는 융합 인재'를 압도적으로 지향하는 한편, 그 학문적 토대인 기초·순수학문 학과는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합 지향과 기초 기반 사이의 균형이 향후 과제로 나타남.
-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부 전입금 확대'(289점)가 압도적 1순위로 나타났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배분'(177점), '고등교육세 등 법정 재원 구조 마련'(171점)이 뒤를 이음. 상위 3개 모두 정부의 구조적·법정 재원과 관련된 것으로, 대학이 AX 재원을 일회성 사업비가 아닌 안정적 재원 구조로 확보하기를 바램.